

# 일관성 없는 방역관리 질병 불러온다.

□ 정리/이유혁 기자

**완**벽한 계사시설과 합리적인 사양관리하에서 사육되는 우수한 닭이라 할지라도 질병에 걸리면 그닭의 경제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양가의 수익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이 질병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익을 높이려면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 1. 공중소독

공중소독은 알다시피 계사내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육계사는 대부분이 개방계사로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사료차나 닭차가 계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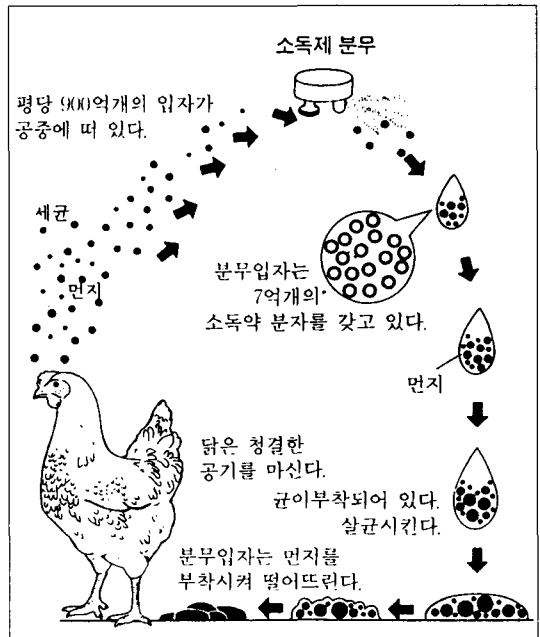
변으로 지나다니면서 질병의 전파가 매우 많이 일어난다.

입추전에 사전방역의 차원에서 계사내부를 소독하고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입추후부터 출하까지 소독은 천차만별이다.

지역별·농장별 방역의 차이가 많다. K지역의 경우 소독 차량이 있어 매주 1회씩 농장 주변을 소독하

고 있지만 그외지역은 소독차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계사와 발효계



〈그림1〉 분무소독의 목적

사와도 차이가 많이 있다.

일반계사의 경우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는 농장도 있으며, 일부 농장은 1일 2~3회 안개분무 소독시설을 갖추고 계사 소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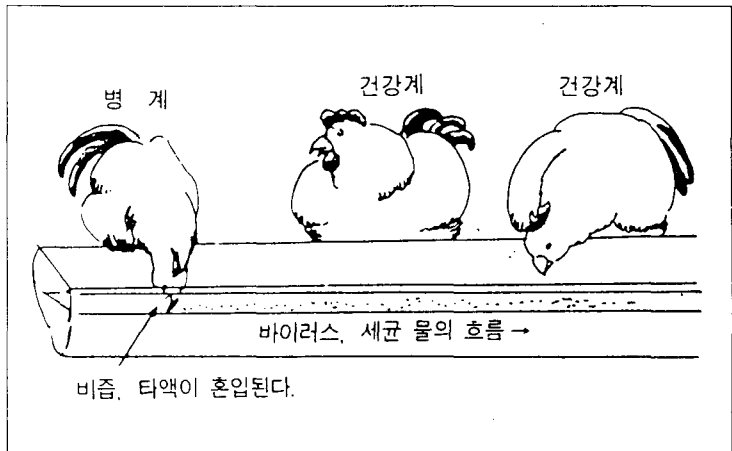
발효계사는 깔짚에 발효균주가 있는 관계로 소독을 할 경우 유의한 균(발효균)을 사멸시킬 우려가 있어 소독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균 중 표면에 있는 것만 사멸되고 깔짚 속에 있는 균주는 살아서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 계속해서 발효를 할 수 있다.

계열업체에서는 사전방역을 중심으로 농가를 지도하고 있고 항상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계사를 소독을 해야 한다고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입추에서 출하까지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2. 음수소독

음수소독의 경우 음료수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독소를 없애므로 해서 질병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텐레스일(-)자 급수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여러 마리



〈그림2〉 음수에 의한 감염경로

의 닭이 함께 물을 마시므로 한 마리가 병에 걸려 있을 때 다른 닭에게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고 니플급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니플에 많은 닭이 사용하므로 잘못 관리를 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음수소독도 공중소독과 마찬가지로 농장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전혀 소독을 하지 않는 농장이 있는 반면 2일 1회씩 하는 농장도 있다.

전혀 소독을 하지 않는 농장의 대부분은 발효계사이고 일반계사에서조차 음수소독을 하지 않고 있다.

발효계사에서 소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중소독과 마찬가지로 음수가 바닥에 떨어져

발효균주를 죽인다고 해서 음수소독을 기피하고 있다.

입추에서 출하까지 소독하지 않는 이유는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독을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열업체는 계사내부와 마찬가지로 음수도 소독을 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 3. 백신접종

백신접종도 질병예방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질병이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백신접종의 이유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그림3〉 백신 접종하는 모습

표. 계열주체가 권장하는 백신접종 횟수와 일반사육농가의 백신접종 횟수

구분	A	B	C	D	E	F, G	일반사육
ND	2회	1회	1회	2회	1회	농가에 일임	1회~2회
IB	1회	2회	2회	1회	1회		1회~2회
IBD	1회	1회	1회	2회	1회		1회~2회

\* 다발 지역에 따라 늘어남

뉴캐슬, 감보로, IB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 사용실태를 보면 한 번도 하지 않은 농장에서부터 최고 8~9회를 하는 농장도 있다. 한 번도 접종을 하지 않은 곳은 계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청결한 곳이다. 반면, 여러번 백신접종을 하는 곳은 주변에 질병이 많다는 증거이

기도 하다.

그러나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일반사육을 하는 농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경험에 미루어 백신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수의과학연구소나 시·도가축위생시험소에 모체이행

항체역가 조사를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짜서 백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백신을 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백신을 하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출하 일령이 늦어진다고 한다.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에서는 계열업체에서 백신프로그램을 짜서 백신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농가에게 일임을 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계약서상의 백신비용으로 입식되어 있는 닭에게 충분한 양의 백신접종이란 힘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계열주체의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4. 구서

쥐의 발생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쥐들이 계사를 돌아다니므로 질병을 여러 곳으로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쥐가 잘 다니는 통로에 쥐덫을 놓거나, 음식물에 쥐약을 넣어 없애고, 쥐구멍 등을 막아 쥐가 계사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한다.

그렇다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여름은 국내의 계사가 개방계사로 고양이가 침입을 해서 병아리를 죽이거나 다른 곳에서 질병을 옮겨오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들고양이가 많이 늘어나 수백마리의 병아리를 잡아먹거나 죽인다. 그래서 최근 농가에서는 들고양이를 죽이려고 쥐와 같이 고양이도 잡는다.

### 5. 파리, 모기 제거

파리나 모기도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여러 농장을 돌아닌다. 파리나 모기 모두 위생상 좋지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사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변에 소독을 자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6. 결론

계사주변과 계사내부의 환경에 따라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당(20원에서 100원선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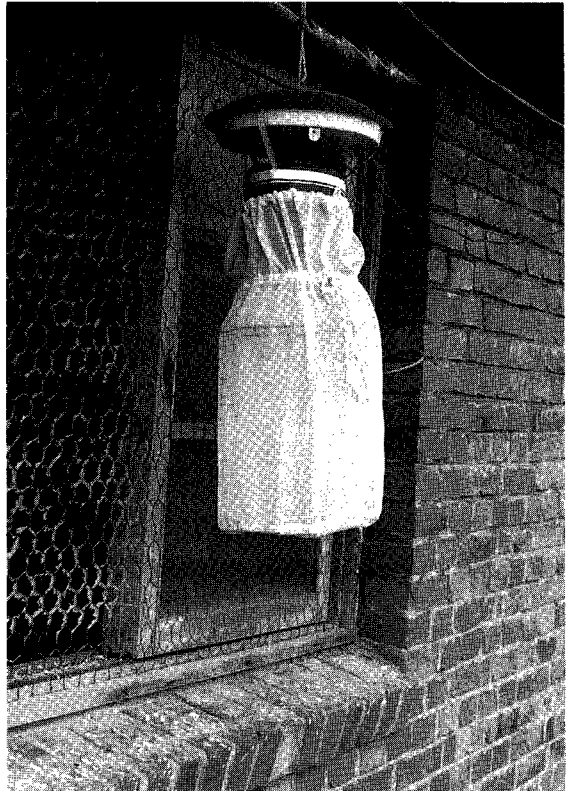
그중에서 백신비용은 전체의 50~70%로 매우 높다.

그만큼 질병예방에 힘을 쓰

고 있다. 계열주체에서는 전체 방역비를 다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자라게 주고 있으며 앞의 표에서 보듯이 백신접종을 최하 3회에서 최고 5회를 하고 때에 따라 백신접종을 더해야 하는데 방역비가 모자라서 충분히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열업체에서는 병아리를 분양하기 전에 모체이행항체 역가를 조사하여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알려주고 백신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계열주체와 연구소(수의과 학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시도가축위생시험소, 각 사료업체, 동물약품회사 등)는 방역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주고 농가에서는 이에 따라



〈그림4〉 파리·모기 제거기

철저하게 시행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화장에서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고 그에 따라 육계농가에서는 농장 안팎을 청결하게 하고 사전에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양계

**암먹고 키자랑  
닭먹고 임자랑**